

히브리성서와 구약성서

- ✓ Clement of Alexandria: “만일 우리의 믿음이...논쟁에 의해 무너져 버릴 그런 것이라면, 무너져 버리게 놓아 두어라. 왜냐하면,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명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.”¹⁾
- ✓ Clifford L. Stanley: “죽일 수 있는 하나님은, 공공봉사의 하나로, 반드시 죽여야 한다” (Any God who can be killed ought to be killed, as a public service).²⁾

**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는 어쩌면 코페르니쿠스, 갈릴레오의 이론을 처음 대했던 중세 사람들의 충격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.

히브리성서: 타나크(Tanakh: acronym of Torah, Neviim, Ketuvim)

- ✓ 토라: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
- ✓ 예언서
 - 전기예언서:
 - 후기예언서:
- ✓ 성문서: 시편, 욥기, 잠언, 다섯 절기문서(Five Megilloth), 다니엘, 에스라-느헤미야, 역대기

구약성서: 개신교 성경

- ✓ 오경:
- ✓ 역사서:
- ✓ 시문서/지혜서:
- ✓ 예언서:

생각할 문제들.

1. 사실(事實)과 진실의 차이는? 구체적으로 성서가 역사적 기록(史實)이라는 주장과 종교적 진실-체험적 실재-이라는 주장의 차이는?
2. 왜 구약성서를 읽어야 하며, 그것과 신약성서와의 관계는?
 - a. 우리가 누구인지(identity)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(ethics)를 가르쳐준다.
 - b. 신약성서 언어와 사상의 배경으로써, 예수의 삶의 이해를 돕는다. (구약성서 안에 어떤 불변의 진리, 실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 체험을 표현할 구체적인 언어를 구하기 위해-신약성서의 입장-아니 그 수단/언어를 이해하고, 더 나아가 그 수단이 가리키는 실재를 바라보기 위해 성서를 읽는다.)

숙제: 창세기 1-11장 읽기.

1) Lee M. McDonald, *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Biblical Canon* [revised & expanded edition; Peabody, Mass.; Hendrickson, 1995], 1에서 재인용.

2) 존 S. 스폹, 『예수를 해방시켜라』, 최중수 역, 한국기독교연구소, 2003, p. 415에서 재인용; 원제: *Liberating the Gospels: Reading the Bible with Jewish Eyes* (1996).